

사랑이여 메

Issue 138 \ October 2018
10

영국 · 공군 보러
규장 아닌 학교로 간다

결혼비용 아껴 기부한
이재우 · 이주는 대위







모두가 누리는 문화 열매

연말이 다가온다.

각종 시상식들로 분위기는 한껏 들떠간다.

작년 초였다.

그 들뜬 분위기에 누군가 목직한 느낌표를 찍었다.

한 뮤지션이 시상식에서 자신이 수상한 트로피를 바로 경매에 부친 것.

자신의 월수입과 월세가 이러하고, 상금이 없으니 지금 이 트로피를 팔아야겠다는 얘기였다.

그 자리에 있던 청중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 역시도 뮤지션의 뜬금없는 말에 웃었다.

그렇게 웃다가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라는 쪽지¹⁾가 떠올랐다.

적지 않은 문화예술인이 생계 유지에 허덕인다.

‘자기들이 좋아서 예술하는 건데 뭐’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들이 삶에 쪼들리면서도 예술에 매달리기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문화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소외된 이들 못지않게

문화를 생산해 내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시상식에서의 그 씩씩한 웃음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 허담(서울 사랑의열매 배분사업팀 담당) 일러스트 이철원

1) 故 최교은 시나리오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웃집 때문에 남겼던 쪽지

목차



08



First Person

결혼비용 아껴 기부한 이재우·이주는 대위 부부

12



포커스

사랑의열매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17



소식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지낸 레슬러 이왕표 별세

18



특집

문화예술 지원 사업

22



현장

인기 힙합 뮤지션 8명 나눔리더 동시 가입

23



포토뉴스

배우 채수빈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되다

24



착한기업

한국수력원자력

30



희망스토리

흐릿하게 보여도 위풍당당 스트라이크

32



착한일터

현대오트모에버



Cover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야 한다. 나눔리더
이재우(오른쪽)·이주는 대위
부부가 바라보는 그곳은 행복이
자라는 동산이고, 그들이 걷는
길은 나눔이 가득한 길이다.



34

•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
전북 고창

38

•
The Page
유기견과 왕따 소녀의 아름다운 만남

40

•
Alive CCK(Community Chest of Korea)
전남 사랑의열매

44

•
나눔 리포트
'사회성과보상사업'에도 배분해야

46

•
나의 나눔 이야기
나누려고 돈 법니다

47

•
사랑의열매 뉴스
중앙회·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7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8

•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38 2018 / 10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8년 10월 / 통권 138호
발행처 사랑의열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랑의열매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6회 전국 초·중·고 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2018.9.3.(월) ~ 10.12.(금)

“나눔영상 시청하고
공모전 응모하자”



가. 응모기간

응모자격 | 전국의 초·중·고 학생
응모기간 및 부문 | (세부내용은 별첨의 안내문 참고)

나. 응모부문

2018.9.3.(월) ~ 10.12.(금)

(1) 초등학생 부문

나눔을 주제로 한 자유형식의 작품
(시, 수필, 일기, 편지, 감상문, 그림이 포함된 글 등)

(2) 중·고등학생부문

나눔을 주제로 한 자유형식의 작품

※ 나눔영상 시청 후, 나눔에 대한 나만의 생각, 실천경험,
각오, 느낌 등을 자유형식의 글로 작성하여 응모

영상보는곳

- 유튜브 (<http://www.youtube.com/>)에서
'제6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검색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홈페이지 공지
(<http://www.chest.or.kr/>)

※ 분량 : A4 2장 이내

(손글씨 작성가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지 글씨크기 11 포인트 기준)

다. 응모방법

(1) 제출서류

학 생 : 작품 1편, 참가신청서 1부
(지정양식/개인정보보호법률 준수)
지도교사 : 나눔교육 지도교사상 추천서식 각 1부
(추천대상자 명부, 공적조서, 동의서)
※ 응모양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접수방법

우편접수에 한함
※ 2018.10.12(금)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3) 접수처

나눔공모전 운영국 “생각나눔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9길 53, 4층 401호 (우)05611
※ 인터넷 및 팩스 접수 불가하며, 응모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음.

(4) 문의처

생각나눔소 전화 : 02-407-9006
이메일 : nanum@goodcontest.co.kr

라. 시상내역

1. 초등학생 부문

- 대 상 : 총 2명 (교육부장관상)
- 최우수상 : 총 17명 (시·도교육감상)
- 우 수 상 : 총 51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 장 려 상 : 총 68명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상)
- 가 작 : 총 500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상)

2. 중·고등학생 부문

- 대 상 : 총 2명 (교육부장관상)
- 최우수상 : 총 33명 (시·도교육감상)
- 우 수 상 : 총 34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 장 려 상 : 총 102명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상)
- 가 작 : 총 600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상)

3. 단체 부문

- 대 상 : 총 2개교 (교육부장관상)
- 최우수상 : 총 40개교 (시·도교육감상)
- 우 수 상 : 총 60개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4. 나눔교육 지도교사상 부문

- 대 상 : 총 1명 (교육부장관상)
- 최우수상 : 총 9명 (시·도교육감상)
- ※ 상훈이 확보된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교육청 소속 학교 교사에 한함
- 우 수 상 : 총 34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20년의 사랑!

어렵던 시절,
사랑의열매 장학금으로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내준 당신처럼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받은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사랑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배우 채수빈님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랑의열매 검색하고
20주년 폴스토리를 확인하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결혼비용 아껴 기부한 이재우·이주은 대위

나눔도 부창부수 젊은 군인의 따뜻한 마음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군인 부부가 있다. 지난 9월에 결혼한 신혼이다.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며 사랑을 키워온 이들은 결혼비용을 아껴 기부했다.

우리나라는 10월의 첫날은 국군의 날로 기념한다. 또 올해는 건군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70년 동안 수많은 군인이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해 목숨 걸고 희생해 왔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군인 부부가 있다. 나눔 실천과 봉사활동을 하며 사랑을 키워온 육군 제2작전사령부 헌병단 중대장 이재우(31) 대위와 육군31사단 헌병대 지원과장 이주은(27) 대위다. 이들은 지난 9월 15일 결혼한 신혼부부로 결혼 준비 비용을 아껴 200만 원을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에 기부해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청첩장도 6·25 참전용사에 기부되는 '나눔 청첩장'

두 사람은 지난 8월 각자의 이름으로 사랑의열매에 100만 원씩 기부를 해 나눔리더가 됐다. 100만 원이라면 위관급 장교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이재우·이주은 대위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예물과 예단에 들어갈 비용을 아껴 전우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기부한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은 지난 4월 2일 충남 사랑의열매와 육군본부가 나눔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모금사업이다. 군 복무 중 헌신과 희생을 한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육군이라는 전우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남편인 이재우 대위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 과하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단과 예물 같은 것의 비용을 줄여 좀 더 뜻깊은 곳에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다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을 알고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 청첩장도 6·25 참전용사를 위한 '나눔 청첩장'으로 선택해 감동을 더하고 있다. 이주은 대위는 "결혼식을 통해 전우를 돕는 일은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화려한 청첩장 대신 참전용사를 위해 일정 금액이 기부되는 '나눔 청첩장'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한 부대에서 중대장·소대장으로 만나 결혼까지

이재우·이주은 대위는 육군31사단에서 중대장·소대장으로 처음 만났다. 이재우 대위가 중대장으로 복무할 때 이주은 대위가 소대장으로 부임해 왔다. 6개월간 함께 근무하며 중대원들과 봉사활동을 다녔다고 한다. 이재우 대위는 “이주은 대위가 훈련 때 눈동자만 빼고 정말 완벽하게 위장크림을 바르고 임무와 역할에 충실히 하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 이후 병사들과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따뜻한 마음까지 보게 돼 애정이 싹텄다고 한다.

이재우 대위는 31사단 중대장 시절부터 현재 근무하는 헌병단에서도 병사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재우 대위는 “병사들의 전투력 향상도 군인으로서 꼭 필요하지만 올바른 인성 함양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군대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하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의 기쁨을 알아간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봉사활동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만 동참하도록 한다. 평일 일과 시간이 아닌 주말에 진행하는 데도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진행한 봉사활동은 홀어르신 이불 빨래 봉사활동부터 무료급식 봉사활동, 신생아 모자 뜨기 봉사활동 등 다양하다. 헌혈 릴레이도 진행해 150매씩 3번을 전달했다. 이주은 대위는 “중대에서 병사들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재우 대위의 따뜻한 리더십에 호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우 대위는 현재 사령부 헌병단 중대장으로 월 1회 부대의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다. 최근 부대는 이 대위의 주도로 삼계탕 닭 150마리를 포장해 홀어르신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군인으로서 국민의 편익에 기여하는 육군이 되는 것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병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도 큼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소외계층에 선풍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12월에는 연탄 봉사 활동, 쌀 기부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 21일 진행되는 경주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기부하는 ‘마라톤 나눔’도 준비하고 있다. 이 대위는 “마라톤 코스 1km를 달릴 때마다 2,000원씩 기부를 하게 되는데 10km 이상 달리기로 약정하고 현재 70만 원 정도 모금이 돼 있다”며 “모두 완주할 경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위는 개인적으로 트라이애슬론 대회 참가도 준비 중이다. 물론 기부를 위해서다. 이렇듯 이재우 대위는 봉사활동을 통해 장병들의 군 생활에 재미와 감동을 주는 활동적인 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둘 다 평소에도 삼계탕 봉사·행복나눔 등 이웃돕기 앞장

이재우 대위는 남수단에 재건지원단 경호장교로 파병을 갔을 때도 기부를 했다. 간부와 병사를 대상으로 이발 봉사를 하며 모은 600달러를 현지 아동들을 위해 기부하고 왔다. 그리고 캄보디아 부대와 맺은 인연으로 캄보디아 현지에 3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우물 한기를 파주기도 했다. 이주는 대위 역시 소속 부대에서 장병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이름난 모범 간부다. 이 대위는 1일 1선(善), 매일 2권 독서, 하루 다섯 번 감사를 뜻하는 ‘행복나눔 1·2·5 운동’을 펼쳐 1/4분기 사령부 최고의 미담 사연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부창부수(夫唱婦隨)다.

두 사람은 신혼부부지만 근무지가 달라 당분간은 떨어져 지내야 한다. 대구와 광주를 오가며 한 달에 한 두 번 만나며 애뜻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만날 때도 나눔이 먼저다. 주로 이재우 대위가 아내가 있는 광주로 가는데 필수 코스로 전남대학교 인근에 있는 헌혈차를 찾는다고. 이재우 대위는 2주에 한 번 혈장·혈소판 헌혈을 한다. 벌써 105회를 했다. 100회를 넘기면 주는 대한적십자사 명예장을 받기도 했다. 이주는 대위 역시 2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헌혈 헌혈’을 10회 이상 진행한 강한 여군이다. 이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이재우 대위는 “군인으로서 국민의 편익에 기여하는 육군이 되는 것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병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말했다.

부부는 나눔에 대한 생각도 같았다. 이들은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는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고 그 나눔으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나눔이라는 작은 희망의 파문을 일으키면 그 파문이 점점 커져 사회 전역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활동을 하다 보면 더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며 나눔의 가치에 대해 말했다.❀

포커스

글 한상현 사진 이신영, 사랑의열매

2018 ASIA-PACIFIC PHILANTHROPY SUMMIT
 사랑의열매 창립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Future of Philanthropy
 - Role of Technology and Social Innovation

2018

ASIA-PACIFIC
 PHILANTHRO
 SUMMIT

Future of Philanthropy - Role of Technology and Social Innovation



사랑의열매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나눔’의 길을 묻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신기술이 일으킨
 4차 산업혁명의 바람.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신속함을 주었지만 사회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맞추어 나눔이 나이갈 바를
 세계인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갤러거 세계공동모금회장 등 참석

사랑의열매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지도자,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빈곤·소외·질병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매년 국내 기업들과 8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기부에 참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공동모금 시스템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UWW)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나눔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자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 브라이언 갤러거 세계공동모금회 회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 세계 10개국 주요 자선단체와 비영리 조직의 핵심 관계자, 중국 주류 언론 단등 국내외 350여 명의 전문가가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개회사에서 “20주년을 맞는 사랑의

열매는 UWW와 함께 컨퍼런스를 열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사랑의열매는 아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기부왕’으로 불리는 아너소사이어티 총대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브라이언 갤러거 UWW 회장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갤러거 회장은 “UWW와 사랑의열매는 어려운 이웃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8대 유엔 사무총장은 “단일 국가나 부자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며 “10년간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위해 파트너십을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엔은 빈곤퇴치, 건강,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등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세워 함께 노력해 왔다”며 “유엔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업과 국가, 단체가 연합할 것을 강조했다.



사랑의열매 국제 컨퍼런스 첫번째 세션에서 '자선계의 혁신과 기업이 정신'이라는 주제로 헨크 캠퍼 세일즈포스.org 총괄 마케팅 본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1 국제 컨퍼런스 식전 공연을 하고 있는 라온제나 어린이합창단. 2 사랑의열매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내빈들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식만찬 자리에서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좌측 두 번째부터 브라이언 갤러거 UWW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 조세 페라오 UWW 국제 네트워크 대표,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엘리스 뷰익 UWW LA 회장. 3 사회적 기업가들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글로벌 임팩트 만찬 모습. 4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사랑의열매와 UWW 관계자들이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선계 혁신·테크놀로지 발전·컬렉티브 임팩트 주제로 진행

이어 진행된 세션은 자선계의 혁신과 기업을 정신, 자선계를 흔드는 테크놀로지의 발전, 사회혁신과 컬렉티브 임팩트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은 밉잉 UWW 아태 부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참여한 구칭 포드 재단 아태 지역 프로그램 총괄 본부장은 “자선은 유엔 SDGs의 기본”이라며 “SDGs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유엔과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 상무가 발표자로 나와 시각장애인용 갤럭시 기어를 이용해 앞을 볼 수 있는 어플 ‘릴루미노(Relumino)’를 소개하며 IT기술과 나눔의 연결의 무한 가능성을 선보였다. 이어 링희이 유청 사회적 기업가 재단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방 공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직 젊은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그린 페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교육부, 비정부기구(NGO) 등과 함께 도농간의 교육 격차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헨크 캠퍼 세일즈포스 org 총괄 마케팅 본부장, 최광철 SK SUPEX 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참가자들은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오찬을 가진 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환영사를 영상으로 시청했다. 박 시장은 환영사에서 “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과 파괴, 실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완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자선활동도 혁신과 협력을 통한 컬렉티브 임팩트가 필요하기에 이번 컨퍼런스가 새로운 나눔의 가치를 얻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선계를 흔드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은 크리스토퍼 피셔 클릭 벤처스 매니징 파트너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단 단장은 ‘기술혁신을 통해 유엔의 SDGs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이선주 단장은 “KT는 세계 지역사회 발전에 집중해 더 나은 건강과 교육 환경, 그리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왔다. 여성은 모바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은 원격 학습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스마트 팜과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단일 국가나 부자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10년간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위해 파트너십을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UWW와 사랑의열매는 어려운 이웃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갤러거 세계공동모금회 회장



“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불평등,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완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자선활동도 혁신과 협력을 통한 컬렉티브 임팩트가 필요하기에 이번 컨퍼런스가 새로운 나눔의 가치를 얻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

박원순 서울시장



“대한민국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사랑의열매는 아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



“자선은 유엔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본이다. 따라서 SDGs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유엔과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구형 포드 재단 아태 지역 프로그램 총괄 본부장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첸 Bain and Company 파트너와 이수인 미국 에누마 테크기업 대표, 론윙 Proxima X 대표가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문제 해결 아이디어 제시

첫날 마지막 세션은 사회혁신과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주제로 라준영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은 ‘사회혁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대안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했다. 민동세 이사장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생애 주기에 걸쳐 건강한 돌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돌봄플러스 협동조합을 세워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자산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사회주택’이란 주제로 사례 발표한 남철관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쇠퇴 지역의 거주 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주거 문제 해결 등의 수단으로 사회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며 “맞춤형 매입임대, 토지임대,

빈집살리기, 셰어하우스, 민간임대, 공동체주택 등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한국형 사회주택이 활성화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성과연계채권 동향 및 활용에 대해 발표한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는 “2년 전 서울시가 처음 시도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투자자, 운영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해 사회혁신을 일궈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덕준 D3주빌리 대표의 발표를 끝으로 첫날 세션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후 한국프레스센터로 자리를 옮겨 컨퍼런스 참가 내빈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만찬 자리에는 회의로 인해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컨퍼런스 둘째 날 각국 나눔 실천 상황 소개

컨퍼런스 둘째 날 행사는 사랑의열매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의 주최국 연설로 시작됐으며, 이어 LA 한인 디아스포라 캠페인 ‘한마음 두사랑



(One heart Two Loves)’에 대해 케빈 김 Bank of hope 은행장이 발표를 했다. 그는 “LA에서 진행되는 한마음 캠페인은 미국의 기부자가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의 50%는 한국의 사랑의열매에 전달된다”며 “한국계 미국 기업인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첫 번째 세션인 모금 실천 사례에 대해 필로알토 Asia Value Advisors 대표가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로 헨크 캠퍼 세일즈포스 org 총괄 마케팅 본부장, 베로니카 콜론담 인도네시아 YCAB 사무총장, 하루카 메라 READYFOR 대표, 드룽 시 상하이 중화자선총회 부회장이 나왔다. 이어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퀄리티브 임팩트 실천 사례는 자넷 버틀러 UWW 아프리카&캐리비안 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살림 칸 인도 UWW 사무총장, 콜린 김슨 아시아 축구연맹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엘리자베스 딥스 UWW 호주 이사회장, 아오키 사치코 일본 국제교류센터 매니저가 참여했다.

첨단 기술 활용한 한국의 사회혁신 사례들

점심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마지막 세션인 ‘한국의 사회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마지막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를 개발한 반호영 네오팩트 대표가 맡았다. 반 대표는 “뇌졸중을 비롯한 신경계, 근골격계 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인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재활 솔루션’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설립된 클린테크 스타트업 이노마드의 박혜린 대표가 발표했다. 박 대표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전력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부터 문화적, 경제적 활동의 제약이 되기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 조력발전에 주목해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1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60W의 수력발전기로 시간당 5대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수력발전기를 개발했다”며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바닷가 마을 아이도 필요한 전기를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는 ‘현장 모니터링의 미래’라는 주제로 사회혁신 사례를 전했다.

이렇게 1박 2일간의 사랑의열매 국제 컨퍼런스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후 사랑의열매는 9월 3일 지하 대강당에서 UWW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지낸 레슬러 이왕표 별세 ‘나눔챔피언’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를 역임한 프로레슬링 스타 이왕표씨가 지난 9월 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 이왕표씨는 2012년 8월 국민 마라토너 이봉우씨와 함께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에 위촉되어 나눔문화 전파에 앞장서 왔다. ‘박치기왕’ 고 김일 선생의 후계자이며, 프로레슬링 전 헤비급 세계챔피언이기도 한 고인은 1999년부터 로터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다. 국제로터리 3640지구 회장(2005년), 3640지구 부총재(2011년)를 지냈고, 서울 영등포 지역 이주민 여성들에게 모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권을 제공하는 ‘고향보내기 지원사업’을 후원하기도 했다.

암투병 중에도 사랑의열매 활동 열의

2013년 8월 담도암 수술을 받은 후 치료 과정에서도 사랑의열매 활동에 열의를 보였다. 2014년 8월 사랑의열매가 주최한 ‘기부체험기증’ 행사에 참석해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의 사이클’에 올라 페달을 밟기도 했다. 그러나 담도암이 재발해 2015년 은퇴식을 갖고 40년 프로레슬러의 삶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방송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6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한편 고 이왕표씨가 담도암 수술을 앞두고 ‘틴틴파이브’ 출신 가수 겸 개그맨 이동우씨에게 자신의 눈을 기증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2013년 8월 14일 작성한 휴대전화 속 유서에는 이동우씨에게 자신의 눈을 기증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동우씨의 경우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어 기증된 안구로 망막을 이식해도 시력 회복이 어렵다. 하지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빛을 선물하고자 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은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됐다. ❀



특집 문화예술 지원 사업

글 한상현 사진 이신영, 각 기관



연극 보러, 공연 보러 극장 아닌 학교로 간다

누구나 문화예술 공연을 보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 즐기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누구나 문화복지를 누리지는 못한다. 농산어촌처럼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살거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공연 한 번 보는 게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사랑의열매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스쿨시어터 프로그램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9년째 지역아동극축제
올해는 인천·광주·세종·안산·양주시에서 공연

연극 관람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지역 아동들을 찾아가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가 진행하는 지역아동극축제가 그것.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정기탁으로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되는 지역아동극축제는 올해로 9년째다.

지난 9월 18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원곡초등학교에서는 직접 학교를 찾아가 연극을 공연하는 ‘스쿨시어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학교 다목적실에 마련된 객석에 3학년과 4학년 아이들이 들어와 앉았다. 무대에 올린 연극은 ‘짜자기 신발’이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와 그 반 친구들이 겪는 학교생활 이야기다. 다문화 아동들이 많은 원곡초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권순봉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사업운영팀장은 “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의 특성과 아동들의 환경을 고려해 그에 맞는 연극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스쿨시어터 프로그램 연극의 특징은 관객이 연극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급에서 발생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원곡초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해법을 제시했다.

올해 진행되는 스쿨시어터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해 양주시, 세종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간다. 또 지역 문화회관에서 온 가족이 우수아동극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 ‘우수아동극 프로그램’도 경기, 대구, 강원 3곳에서 기획되어 있다. 김숙희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은 “지역아동극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소의 가족과 그 자녀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해 문화시민으로서 자존감을 확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아동극축제는 지난 9년간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부산을 포함한 6개 도시, 74개 지역을 90회 방문하여 8만 5,458명의 어린이를 만났다. 극단 허망세, 공연창작집단 뛰다, 올리브와쥘콩, 브러쉬씨어터, 예술무대 산등을 비롯한 총 72개 극단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김숙희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생각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내용 구성”

“요즘 아이들은 TV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볼 수 있죠. 공연을 볼 기회도 많고요. 그런데 교육적 내용으로 특화된 연극은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는 공연을 관람하는 아이들의 정서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를 교육적 이슈와 접목시킨 연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로 인해 생각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연극을 보면서 웃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극 속 주인공이 왜 그런 대사를 했는지,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고하며 깨달았으면 합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요. 이에 맞춰 해외공연팀을 초청해 아이들에게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해외공연을 만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 ‘가족의 재발견’

서울·광명·수원 거주 70가정 195명 대상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는 프로그램 지원

행복한 삶에 있어 여가와 문화생활은 중요한 부분이다. 현 정부에서도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켰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도 보고 음악회도 다니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그러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여가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일 것이다. 서울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활동형 여가를,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TV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삼성전자의



‘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자원봉사포럼은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문화 지원 프로그램 ‘가족의 재발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자원봉사포럼은 서울 강남구와 영등포구, 경기도 광명시와 수원시 등 4개 지역에 거주하는 70가정 195명을 대상으로 가족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치료와 여가문화활동을 매월 한 번씩 진행해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현우 한국자원봉사포럼 차장은 “지난 5월 충북 음성에서 열린 노숙자축제에 참여 가족 전체가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며 “남을 돕는 것

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지 체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가족의 재발견’의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당 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의 재능을 발굴해 교육한다. 매주 음악, 미술, 연극, 전통악기 등 5개 티칭클래스에 8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가르치고 있다. ‘재능발굴&티칭클래스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들과 취약계층의 아동을 서로 매칭시켜 재능을 발굴하고 수준 있는 예술 수업을 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좋은 배움의 장이 열리고 있다.

청소년 클래식 음악교육 오케스트라

천안에선 현악앙상블, 청주에선 관악앙상블
1년에 주 2회씩 10개월 동안 악기 레슨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찾거나 게임에 빠져든다. 상상력과 호기심은 점점 감소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청소년들이 클래식 악기를 배우며 배려와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지정기탁으로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은 충청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클래식에 관심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면접을 통해 청소년을 선발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지역 청소년 6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천안에서는 현악앙상블이, 청주에서는 관악 앙상블이 각각 활동한다. 이들은 1년에 주 2회씩 10개월 동안 음악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음악캠프를 통해 만나 연습을 하고 정기연주회와 재능나눔공연 등 무대에 오른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한 소찬욱(16) 군은 씨름선수가 꿈이다. 씨름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첼로를 놓지 않는다. 소찬욱 군은 “첼로는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며 “현악과 관악이 모여 합주를 할 때는 씨름기술로 상대를 이기는 것 같은 쾌감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진행하면서 참여 학생 중 클래식 음악가의 꿈을 꾸는 청소년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꿈키움 전공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악 1명과 관악 1명 등 2명에게 10개월간 입시를 목표로 맞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지수 한국메세나협회 사업 담당자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 전공을 희망하는 단원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음악회 ‘행복나눔 콘서트’

전교생 100명 이하 초등학교 찾아가
이해 쉽게 스토리텔링 공연... 동네잔치로

농산어촌은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에 필요한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문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시설이 있더라도 방음과 조명, 무대장치 등 조건이 열악해 제대로 된 공연을 관람하기 어렵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 공연시설이 도시에 1,946개일 때 농산어촌은 886개로 50% 미만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군 단위 위주로 있어 면 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관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문화예술 공연 관람은 농산어촌 주민들에게는 남의 얘기다. 농번기에는 강아지 손도 빌려야 할 정도로 바쁘다.



생업으로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 사랑의열매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농산어촌 청소년들을 위해 나눔문화예술협회에서 진행하는 ‘행복나눔 콘서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도 양양, 경기도 남양주, 전남 담양, 전북 무주 등 전국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전교생이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미술과 국악, 클래식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공연을 선보인다. 김효영 나눔문화예술협회 국내사업팀장은 “아이들이 공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는 스토리텔링 공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회는 악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클래식 곡을 해설해 주며 이해를 돕는다. 미술 공연은 미술사가 아이들에게 미술을 직접 가르쳐주기도 한다. 김효영 팀장은 “지난해 아카펠라팀이 공연을 했는데 학부모와 지역 어르신까지 다 참여하는 동네 잔치가 됐다”며 “기수가 꿈인 아이가 클래식 공연을 보고 성악가를 꿈꾸기도 했다”고 전했다. ❀

인기힙합 뮤지션 8명 나눔리더 동시기입 쇼미더머니? 쇼미더나눔!



타이거JK와 윤미래 부부를 비롯해 비와이, 도끼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힙합 뮤지션 8명이 동시에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지난 9월 1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갓 오브 힙합’ 공연에 참여한 출연진 전원이 사랑의열매에 출연료를 기부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한 것. 이들은 공연에 앞서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을 만나 출연료 기부를 약속하고 나눔리더 가입식을 가졌다. 이날 나눔리더에 가입한 힙합 뮤지션은 타이거JK·윤미래 부부와 비지, 비와이, 도끼, 더콰이엇, 헤이즈, 김하은 등 8명이다. 이에 앞서 이번 공연의 기획사 (주)쿤엔터테인먼트와 공연 투자사 엘림블록체인도 지난 7월 16일 사랑의열매와 ‘사랑나눔 기부 협약식’을 갖고 티켓 판매에 따른 공연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가입식에서 타이거JK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잘살길 바라셨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내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해 주는 (윤)미래에게 가장 고맙다”며 각별한 애정도 과시했다. 타이거JK와 윤미래 부부는 2014년 타이거JK의 부친 별세 후 ‘베풀고 살라’는 유지에 따라 당시 보유 중이던 은행 예금 등 금융자산을 모두 기부했으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1억 원 기부 등 평소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다.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힙합 뮤지션들이 나눔에 앞장서 참여해 주셔서 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배우 채수빈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위촉식

일시 : 2018. 9. 4 (화) 장소 : 사랑의열매회관 전달식장



채수빈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되다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게요”

배우 채수빈씨가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9월 4일 사랑의열매회관 6층에서 진행된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위촉식은 채수빈씨와 소속사 ToIn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윤영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채수빈씨는 “사랑의열매 2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홍보대사로 나눔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채수빈씨는 “유기견 봉사활동이나 무료급식 봉사 등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내세울 것이 없다. 하지만 나눔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기에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홍보대사로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채수빈씨는 사랑의열매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작한 연중광고에 재능기부로 참여했으며 폭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촬영에 임해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했다. 채수빈씨는 2015년 KBS 연기대상 여자 신인 연기상, 2017년 MBC 연기대상 월화극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10월부터 방송될 SBS 월화드라마 <여우각시별>에 배우 이제훈씨와 동반 출연한다. 🍀

착한기업_한국수력원자력

글 박미진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밀알복지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 태양보다 뜨거운 이웃 사랑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따뜻한 불빛이 있다. 열심히 하루를 살아간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돌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쁜 사람에게 해코지당하지 않도록 비춰주는 고마운 불빛이다. 그 안에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성이 담겨 있다. 그 빛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대표하는 말이다. 한수원은 원자력과 수력, 양수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편의를 더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다.

한수원의 사회공헌활동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안전·행복’에 힘쓰고 있는 것. 또한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위한 ‘지역사랑’,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인재로 양성하는 ‘인재육성’,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교육문화 측면에 기여하는 ‘글로벌 봉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태양광 안심가로등 ‘아빠등(등)’

주민 안전 위한 안심가로등 설치
범죄예방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

몇 해 전만 해도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밤은 사뭇 달랐다. 해가 지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설치된 지 20년 넘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골목을 채웠다. 한 지역 주민은 “대학 다니는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면 애 아빠가 항상 멀찌감치 떨어진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

러 나가야 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실제 서울시 정책개발연구원의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는 가로등 설치가 적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골목길에서 범죄가 다수 발생한다는 대검찰청의 통계도 있다. 특히 야간시간(18시~07시)에 강력범죄 중 61.5%가 발생해 방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두운 골목길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요즘 지역 주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매일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안전하게 밝혀 주는 안심가로등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도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었다. 충남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의 어촌마을도 야간 및 새벽 조업을 나갈 때 주변이 깜깜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이들 지역 역시 안심가로등이 밤을 밝힌 이후 주변이 밝아지면서 사고 위험과 안전 불안감이 크게 줄었다. 작은 불빛은 주민들에게 불안 대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선물해 주었다.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통령상 수상도

한수원은 사랑의열매 지정기탁 사업으로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아빠 등처럼 따뜻하고 포근함을 주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태양광 안심가로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전국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어두운 안전취약지역과 각종 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범죄예방과 시야 확보를 돕고 있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경북 경주시, 의성군, 봉화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보은군, 전북 정읍시, 전남 진도군으로 10월부터 본격적인 안심가로등 설치 공사가 진행된다.

안심가로등 사업의 효과는 실로 상당하다. 1·2차년도 사업에서 안심가로등 설치 후 모든 지역에서 범죄 경험률과 범죄율이 감소한 결과가 나온 것. 또한 태양광 안심가로등은 기존 가로등의 일반 전구보다 1.5배 이상 밝은 LED 램프를 사용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해 에너지 절감 효과도 상당하다.

이러한 효과들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같은 해 ‘CSR 필름페스티벌’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 다른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도 벤치마킹해 주거·환경 복지의 예방적 차원의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기가정 돕는 ‘반딧불 희망프로젝트’

안심가로등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비추듯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위기가정도 밝게 비추는 반딧불 희망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안심가로등 사업 지역 내 어려운 저소득가정을 선정, 긴급 지원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골자다. 2015년 부산 서구 1개 가정을 시범 지원한 이후 2016년 156가구, 2017년 394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8개 지역 320가구 이상 위기가정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으로 생활 안정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수원은 어려움 속에 만난 따뜻한 불빛을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함께 만드는 안전길

지역 주민 대상으로 ‘안심길 체험’

으스스한 골목길이 산뜻한 벽화 명소로

한수원은 사업 지역 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들도 진행한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안심길 체험이 대표 프로그램이다. 태양광 안심랜턴 조립 부스에서는 태양광 안심가로등과 같은 원리를 가진 랜턴 조립을 통해 안심가로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안심가로등 포토존 등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체험을 선사하며 안전길에 대한 중요성을 전한다. 또 학교 교실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안전길 만들기 체험 운영을 통해 안전길 문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안심가로등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안전 보호 기능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점등식을 진행해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영덕·청평·영광 마을 벽화로 주민들 웃음꽃

안심가로등 설치 후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마을을 깨끗하게 꾸미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2015년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세운 69본의 안심가로등에는 화분을 설치했다. 2016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38본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진행한 벽화 사업은 마을 경관의 변화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1월에 진행된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지역의 벽화 그리기에는 매일 그 길을 통해 통학하는 영광고등학교 학생 35명과 영광해룡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이 도움의 손길을 더했다. 골목길을 우중충하게 만들었던 낡고 금이 간 담벼락은 미장으로 틈을 메우고, 깨끗한 색으로 칠해 밑단장을 마친 뒤 아이들의 솜씨 발휘가 시작됐다. 라바, 토토로, 슈퍼마리오와 같은 친숙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주인공부터 초록 기운이 가득한 나무와 아름다운 황금빛 해바라기 꽃밭 등의 자연 풍경으로 열심히 벽면을 예쁘게 채워갔다.

시종일관 환한 웃음 가득했던 벽화 그리기 작업 현장. 작업이 끝난 뒤에도 함께 땀 흘려 참여한 이들의 웃음이, 그리고 마음 놓고 안전한 골목을 거닐며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웃음이 골목길을 환하게 채웠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

새집 꾸며주는 '행복나래 집수리'
저소득층 집·마을 경로당 개보수

지난 3월 22일 경주시 서면 건천3리경로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한수원이 노후화된 경로당에 대한 보수 공사 후 '행복나래 집수리' 사업 헌정식을 진행한 것. 최경복 건천3리 이장은 "낡고 냄새나는 경로당을 깨끗하게 수리해 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수원은 2016년부터 해비타트와 손잡고 '행복나래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2016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경주시 47가구와 2개 복지시설, 울주군 19가구와 2개 복지시설의 창호와 도배, 장판 교체, 욕실과 주방 등을 개보수했다. 2017년 하반기에 시작한 2차년도 사업은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발암물질이 대량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경주, 부산, 충청권(천안, 아산, 예산, 충주), 칠곡 등 89가구에 집수리와 54곳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공사가 완료되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행복나래 집수리 사업 덕분에 생존의 기본요소인 주거환경이 안락하게 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되고 있다.

지역 아동 위해 도서관 조성하고 귀가 지원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학습개선을 위한 '행복더함 희망나래'는 한수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서관을 조성하고, 안전한 귀가와 문화체험 등에 사용할 차량을 지원하는 것. 2012년 사업 시작 후 지난해까지 총 152억 원을 들여 325대의 차량을 전달하고, 177곳의 지역아동센터에 맞춤형 도서관을 지원했다. 올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 11인승 카니발 84대와 맞춤형 도서관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문화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원전 홍보관과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경주 본사 이전 시대를 맞아 경주 내 26개 지역아동센터에 온라인 영어교육과 해외체험 영어 연수를 지원하는 등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

멘토링 프로그램 '아인슈타인 클래스'
명문대생들이 멘토로 변신, 학생 돌봐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만큼 더 큰 꿈과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 환경의 격차로 인해 도시의 아이들에 비해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수원은 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얻고, 지역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부터 연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학습 및 정서 멘토링 프로그램인 '아인슈타인 클래스'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원전 주변 지역 초·중·고 청소년들이 국내 10위권 내의 명문대생 멘토를 만나 교과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을 받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여름에는 멘티를 대학으로 초청해 직업체험 및 대학교 탐방 행사도 실시한다. 멘토는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장학금을 지원받아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되었다.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산학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까지 총 2,800여 명의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이 370여 명의 대학생 멘토를 만나 양질의 교육은 물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아름공학교실·찾아가는 공학차 등 과학 교육도

한수원은 한양대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와 함께 원전 주변 지역 학생들을 미래 과학 꿈나무로 육성하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사업인 '아름공학교실'도 운영 중이다. 2016년에는 본사 경주 이전으로 경주 시내권 학생들을 위한 캠프도 열렸다. 지난해에는 4개 원전 본부 및 사업소 청소년 926명이 참여했다.

사내 자원봉사 교사 100여 명이 참여해 지역 내 학생들에게 과학키트 조립을 통한 실험과 실습으로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게 알려준다. 또 '찾아가는 공학차' '공학전공 진로 설명회' '공학캠프' 등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즐기는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고, 미래 이공계 인재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의 지역 봉사

10억 예산으로 저소득층 실명예방 사업
베트남 등 개도국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까지 불러오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자각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백내장도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병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안과를 찾아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저소득층 주민이나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한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명예방재단과 협력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료 실명예방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주와 부산, 울진 등 한수원 사업소 인근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백내장과 녹내장, 망막 질환을 위한 시력 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각막곡률검사 등을 진행한다. 무료 안 검진 후 안약이나 돋보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명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에게는 눈 수술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812명에게 무료 안 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수술이 필요한 527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1,274명에게 안 검진을, 366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했다. 한수원은 올해에도 각 사업소 주변 지역 약 1,800여 명에게 무료 안 검진을 실시하고 수술이 필요한 이에게는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여름마다 대학생들 해외로 나가

한수원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만들기'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이나 해외사업 예상국에 봉사단을 파견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 오지마을을 방문해 주거환경, 의료보건, 빗물식수 설비,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여름마다 서울대, 동국대, 위덕대, 경주대, 한동대, 포스텍, 울산대, UNIST 등의 산학협동을 맺은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글로벌 봉사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 빈딘성에 빗물을 이용한 식수 설비를 설치하고, 중학생 대상 과학교육을 시행했으며, 띠엔장성에서는 도서관 건립 및 도서 기증과 과학교육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체코 두코바니와 트르제비치 지역에서는 근로봉사와 벽화 그리기 및 문화 교류 활동을 벌였다.

국경을 뛰어넘는 한수원의 따뜻한 손길은 해당 나라와의 상호협력 및 우호관계를 다지고, 한국의 평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



흐릿하게 보여도 위풍당당 스트라이크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bowling을 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핀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bowling공을 정확한 위치로 굴리기만 하면 스트라이크도 칠 수 있다고 한다. bowling으로 삶의 즐거움을 찾았다는 시각장애인들을 만났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기자가 오히려 시각장애인인 것 같았다.

시각장애인들이 bowling장을 찾은 이유는 '위풍당당 스트라이크 시각장애인 bowling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세종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세종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bowling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재활 의지를 심어주고 체력증진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이다. 김선옥 팀장은 “시각장애가 있으면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꺼리는데 bowling 수업은 인기가 많아 출석률이 높은 편”이라며 “프로그램 참가자 평균 연령이 70세일 정도로 고령이지만 5게임을 쉬지 않고 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시각장애인 bowling교실 프로그램

행정안전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2청사 맞은편의 한 bowling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이 bowling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오후 2시가 되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bowling장으로 들어왔다. bowling을 가르치는 강형구 강사를 발견하자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사람이나 사물을 정확히 인지하는 듯 보였다. 이들이 시각장애인이 맞나 싶었다. 그런데 12명 전원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했다. 김선옥 세종특별자치시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全盲)만 생각하는데 시각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있다”며 “4급부터는 걸음으로 보기에 일반인과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로

주 2회 10주간 총 20회 진행... 출석률 높아

시작 시각이 되자 라인 앞으로 모여 간단한 안전예방교육을 받고 강사의 지도에 따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그리고 bowling의 기초인 스텝을 연습했다. 공을 굴리는 연습까지 마친 후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갔다.

위풍당당 스트라이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bowling공을 처음 잡아보았다는 시각장애 1급 김정숙(71) 할머니는 “딱 한 번 스트라이크를 쳐봤는데 그때 기분을 잊을 수 없다”며 “땀도 나고 체력 운동도 돼 좋다”고 말했다. 이날도 스트라이크를 노리며 bowling공을 들고 라인 앞에 섰다. 앞을 전혀 볼 수 없어 전담



사회복무요원이 도우미로 나섰다. 레인 왼쪽에는 레인과 일직선으로 서 있는 긴 안전바가 있었다. 김정숙 할머니처럼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볼링장에서 특별히 준비해 놓았다고 했다. 안전바에 손을 얹었고 스텝을 했다. 하나, 둘, 셋~ 쿵. 공이 레인을 구르다 도랑에 빠지는 거터볼이 됐다. “아! 아깝다~”며 웃었다.

시각장애인 볼링교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다. 주 2회씩 10주간 총 20회를 진행한다. 강형구 강사는 “볼링은 공을 굴러 핀을 쓰러뜨리는 단순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스트레스가 풀리고 생활에 큰 즐거움을 준다”며 “볼링은 힘이 아니라 공의 무게를 이용하는 운동이라서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볼링 덕에 세월을 거스르며 살아요”

이날 최고 점수는 시각장애 4급인 노재철(71) 할아버지였다. 그는 왼손으로 볼링 공을 굴리고 있었다. 공에 회전을 넣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첫 게임이 끝나자 점수판에는 무려 157점이 찍혀 있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자 기자에게 “깜짝 놀랄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휴대폰을 열었다. 점수판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무려 258점이었다. 사고로 왼쪽 시력이 나빠져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노재철 할아버지는 자신의 볼링 점수를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볼링을 시작한 지 4년 됐는데 내 삶의 활력소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즐거워요. 또래 친구들이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낼 때 난 볼링을 치면서 놀아요. 볼링을 치고 싶어 40년 피우던 담배도 끊었다니까요. 담뱃값이면 볼링을 치고도 남거든요.”

기념촬영을 마친 기자에게 노재철 할아버지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늦게 배운 볼링 때문에 나이 먹는 줄 모른다”며 “볼링 덕에 세월을 거스르며 사는 것 같다”고 했다. ❀



“실내 맞춤형 스포츠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최태수 세종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부회장

“올해 무더위가 심했잖아요. 야외에서 운동을 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특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지 않았잖아요. 볼링은 실내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나이든 노인들도 즐길 수 있고요. 시력이 좋지 않아도 기본기를 잘 배우면 쉽게 할 수 있으니 이만한 운동이 없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세종 사랑의열매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사업이 20회 한정이라는 건데 시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착한일터_현대오토에버

글 홍경기 사진 양수열



IT 공부방·장애인 앱 개발 소외 이웃과 디지털로 나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 격차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인종 간, 국가 간, 세대 간, 성별 간 정보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불우한 환경 탓에 정보 격차를 겪게 되고 나아가 심화된 빈부 격차를 경험하게 될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대오토에버를 찾았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IT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 혁신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오토에버(대표 정영철)는 모바일,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비롯한 새로운 ICT 기술 및 시장 트렌드와 연계, 고객의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산업과 IT 기술 및 서비스 간 융합을 통해 비즈니스 융합 가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I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업계 최강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현대오토에버는 2010년 국내 최초 전사에 걸쳐 CMMI 레벨 5 인증을 획득해 사업 수행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분야의 글로벌 표준인 CMMI 방법론을 도입해 체계적인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우수한 품질 체계를 기반으로 국외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스마트 팩토리, 환경 IT 등 ICT 사업을 시장 매력도가 높은 중국, 인도, 중동 지역에 확대 전파하면서 현대오토에버는 글로벌 IT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직원 성금은 기본... 전사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를 지배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이런 능력의 격차가 빈부 격차와 불평등·소외 등의 사회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5년 착한일터로 가입한 현대오토에버는 임직원 성금과 회사 매칭금을 통해 매년 꾸준히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 공부방 지원 사업'과 '스마트자동차체험교육'을 위해 각 1억 원씩 총 2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네트워크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해 '함께일하는재단'에 1억 원, '장애인 앱 개발 콘테스트'를 위해 '(사)그린라이트'에 1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동식 경영지원실장은 "회사가 가진 핵심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여러 이해관계자 중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도 사회구성원인 만큼 이윤을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HYUNDAI AutoEver

2000년 설립한 현대오토에버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고객 니즈, 시대 변화에 맞춰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 IT 융합서비스 등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22개 사업장을 비롯해 해외 11개 사업장이 있으며 IT 전문 인력이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비즈니스 통찰력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ICT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덧붙여 그는 "주위 아이들, 학생들을 보면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지만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뜻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미래 주역들인 그들에게 회사 핵심 역량인 IT 분야 지식을 공유해 자신들의 꿈을 맘대로 펼칠 기회를 주고자 기부, 나눔, 봉사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 정보 격차 해소에 주력

실제로 지난 8월 회사는 사랑의열매와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손잡고 대구 지역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의 IT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IT 공부방' 지원 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개 지역아동센터에 1억 원 상당을 지원함에 따라 6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IT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달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IT 교육을 통한 자동차 공학의 즐거움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스마트자동차 체험교육 대학생 멘토 발대식을 열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멘토들은 지역아동센터 5곳, 초등학교 50명에게 자동차 공학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기부, 나눔, 봉사활동이 기업 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직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애사심이 커지고 이는 곧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강동식 경영지원실장은 "사랑의열매와 같은 공신력 있는 단체와 협업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갖는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커졌다. 자연스럽게 성과도 높아졌다. 내부적으로 소기 성과 이상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_전북 고창

글 사진 조혜원(여행작가)

붉은 꽃무릇에 끌려 선운사에 가본 적이 있나요?

어디를 걸어도 좋을 계절이다. 자연에 안겨 풍경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 계절을 만끽하고 싶다.
꽃무릇의 황홀함에 취해 걷고, 성곽을 지그시 밟으며 걷고,
꽃향기를 따라 걷는 전북 고창 여행.



붉은 그리움이 만발한 선운사

선운사로 향하는 길, 주차장을 지나는 순간부터 깊은 숲으로 들어선다. 도솔천을 따라 이어지는 길은 무장애 여행지로, 목재 데크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 이용자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다. 녹음이 짙어질수록 발걸음은 느려지고 숨은 더 깊어진다. 우산을 펼쳐도 산책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만큼 넓고 우거진 길이 이어진다. 가을엔 단풍으로 가득한 숲이 도솔천에 비쳐 하늘과 땅 모두 단풍의 한가운 데를 유명하듯 산책할 수 있다.

“선운사 골짜기로/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동백꽃은 아직 일러/피지 안했고/막걸리집 여자의/육자배기 가락에/작년 것만 상기도 남였습니다/그것도 목이 쉬어 남였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때 이른 동백꽃을 보러 선운사에 갔다가 꽃은 보지 못하고 내려오는 길 주막에서 주모의 육자배기 선 가락만 듣고 왔다는 시. 꽃마다 때가 있어 어느 꽃은 보지 못하겠지만 선운사에 많은 꽃이 핀다. 그러니 때를 놓쳤다 아쉬워할 필요 없다. 선운사의 봄은 동백과 벚꽃이, 여름엔 야생화, 늦여름 배롱나무와 가을 초입 꽃무릇, 겨울엔 동백이 핀다. 선운사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배롱나무가 객을 맞이한다. 대웅전 양옆엔 마치 절을 지키듯 멋지게 굽은 배롱나무가 존재감을 드러낸다. 많은 이가 드나드는 사찰이지만 활기와 고요가 공존한다.

이맘때 선운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진작가가 모여든다. 이른 새벽 나뭇잎 사이로 찬란히 내리는 빛과 꽃무릇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다. 상사화와 꽃무릇을 혼동하는 이가 많은데 꽃무릇은 꽃이 진 후에야 잎이 돌아오고, 상사화는 잎이 지고 꽃이 핀다. 상사화나 꽃무릇이나 순서는 다르지만, 잎과 꽃이 함께 피지 않아, 만나지 못하는 애절한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다. 붉은 왕관 같기도 하고, 도도하게 꼬리 올린 속눈썹 같기도 한 꽃무릇. 선운사에서 나와 다리를 건너 우측 숲길로 들어서면 꽃무릇 군락지가 펼쳐진다. 붉은 꽃으로 뒤덮인 숲길은 묘한 분위기가 풍긴다.

왼쪽 페이지 가을 선운사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꽃무릇을 보기 위해서다. 빨간색 왕관을 닮은 매혹적인 자태가 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위 선운사 경내에 있는 배롱나무. 꽃이 오래도록 피어 있어 목백일홍이라고도 불린다.



1 우리나라에서 성곽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고창읍성.
 2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간 왕대나무숲을 걸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3 좋은 음식 만들고 나누는 것이 행복하다는 퓨전한정식 마실의 백은실 사장.



오랜 세월을 걸어 대나무숲까지 고창읍성

모양성이라고도 불리는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1453년) 때 왜침을 막기 위해 축성한 성곽이다. 성벽에 새겨진 ‘계유년에 호남의 여러 고을 사람이 축성하였다’는 글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전라도민들이 힘을 모아 축성한 호남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다. 둘레 1,684m, 높이 4~6m, 면적 5만 172평으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 데다 복원공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원형에 가장 가깝게 보존된 자연석 성곽 중 하나다.

고창읍성엔 “한 바퀴를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 돌면 극락 승천한다”는 답성놀이 풍습이 있다.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밟으면 병 없이 오래 살고, 저승길에 극락 문에 당도한다니 믿어야 본전 아닌가. 돌을 머리에 이고 걸으며 밟아줌으로써 봄을 맞으며 부푼 성벽의 흙을 굳건하게 하고, 머리에 이고 온 돌을 일정한 지역에 쌓아두게 해 유사시 석전(石戰)에 대비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성곽에 올라서면 고창읍이 시원스레 내려다보인다. 높은 건물이 없는 고창읍은 성을 축성할 때의 풍경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읍성을 나뉘나뉘 걷다 보면 닿는 대나무숲은 읍성 산책의 정점이다. 내 키의 몇 배나 될지 가늠도 되지 않게 하늘로 쪽 뻗은 대나무숲 안에 들어서면 대나무 사이를 유평하는 바람소리와 초록에 압도당한다. 고창의 고즈넉함을 좀 더 진득이 느끼고 싶다면 읍성 앞 한 옥마울에서 하루 묵어가는 것도 좋겠다.

퓨전한정식으로 사람 입맛 잡는 착한가게 마실

퓨전한정식 마실은 음식으로 고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인공조미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창에서 나고 자란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를 활용한 드레싱 샐러드, 단호박 해물찜, 고창 명물 장어구이 등 한 달에 2~3가지의 제철 메뉴를 만든다.

“좋은 음식을 만들다 보면 행복해요. 음식을 할 때처럼 기부를 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어릴 적 백은실 사장의 어머니는 지인들에게 집에 와서 밥 한 끼 하고 가라고 자주 권하셨다. 그 영향을 받아 백 사장도 좋은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도 여행객들도 마실가듯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식당 이름도 ‘마실’이라 지었다.

음식점을 하기 전부터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소소하게 하다가, 식당을 오픈하고 1년 후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했다. 사랑의열매뿐 아니라 여러 단체에 기부하고, 기부단체의 손이 닿지 않는 곳도 개인적으로 살핀다.

“고창 청보리밭이 유명하데, 청보리 철이 한 달쯤 지난 후 노랗게 물든 황금 보리밭이 정말 아름다워요. 가을엔 얘기 단풍으로 물든 문수사도 장관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항상 밝은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에 행복을 담아내는 백은실 사장이 알려준 고창의 또 다른 모습. 다음 계절에도 고창을 찾을 이유가 생겼다. 🍀

여행정보

선운사
주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문의 063-561-1422
입장료 성인 3,000원 / 청소년 2,000원 / 어린이 1,000원

고창읍성
주소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45

문의 063-560-8047 (읍성안내소)

이용요금 성인 2,000원 / 청소년, 군인 1,200원 / 어린이 800원

퓨전한정식 마실
주소 전북 고창읍 월암수월길 104-8

문의 063-564-4000
영업시간 매일 11:20~21:00 (브레이크타임 15:30~17:00)



유기견과 왕따 소녀의 만남 외톨이 낙인 지운 사랑의 힘

정을 나누면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형성된다. 그 다리는 미처 공유하지 못한 상당 부분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며 사람들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위기를 무마해 준다. 나눔의 진리와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게 하는 서울시극단의 가을 무대 <그 개>에 관한 단상.

우리는 가끔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 타인에게 나눔과 친절을 베풀어야 함에도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선행을 계속해 나가면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스스로 믿게 된다. 나눔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구제하는 사회구성원 간의 사랑인 동시에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

“괜찮아, 우리는 모두 유기견이야”

“아! 짱!” 욕에 가까운 막말이 튀어나온다. 16세 소녀는 이내

“안 돼” 하며 자신의 뺨을 때린다. “나쁜 새끼! 꺼져!” 욕설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소녀가 뺨을 때리는 강도도 거세진다. 틱 장애를 앓는 16세 소녀 ‘해일’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욕설을 내뿜는다. 소녀와 아빠는 부지불식간에 이뤄지는 이 제어 불능의 상황을 해결하느라 많은 노력을 쏟지만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결국 해일은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 만다.

친구들이 두렵고 학교 가는 일이 죽기만큼 싫지만 뒷산을 오르는 일만큼은 너무나 좋다.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마음껏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온한 숲속에선 쉽없이 튀어나오던 욕도 더는 나오지 않는다.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선 틱

증상도 가라앉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해일은 숲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한다.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 귀여운 개에게 해일은 '무스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사랑을 전한다. "괜찮아, 우리는 모두 유기견이야"라고 속삭이면서 말이다.

소외이웃·빈곤계층이란 단어가 사라지려면

서울시극단의 10월 무대 <그 개>는 외톨이 해일과 유기견 무스탕을 중심으로 외롭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소외이웃의 삶을 담담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펼쳐내고 있다. 틱 장애로 인해 외로움에 익숙한 해일과 대저택의 운전기사인 아빠 상근, 저택의 주인이자 제약회사 회장인 장강, 그리고 해일이 사는 빌라로 이사 온 화가 선영과 그녀의 남편 영수는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 친숙한 시민들의 생활에 도사린 그늘과 불행 앞에서 우리는 사회의 불평등과 삶의 부조리를 목도하게 된다.

말없이 떠나버린 엄마를 그리워하는 해일과 능력 있는 가장이지만 정작 가족에게 외면받는 장강, 인상된 건강보험료에 전전긍긍하며 해축증명서에 골머리를 썩는 선영과 영수 등 각박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고난과 눈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자 자화상이다.

한 단계 밀려나가거나 정신 줄을 놓는 순간 '소시민'과 '중산층' 레벨에서 '소외이웃'과 '빈곤계층'이라는 시련 속으로 떨어지는 불안정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바라보면서 '나눔'과 '공감'만이 이 불온한 세계를 지탱하게 하는 축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사회가 짝은 낙인... 사랑과 나눔으로 극복

세상의 아픔과 고통은 가장 유약한 존재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다. 외로운 소녀 해일에게 틱 장애의 고통이 지워지고 온순한 개 무스탕에게 유기견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세상에서 시작해 개인에게 이어지는 아픔과 부조리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며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꿈과 열정이 있다. 더욱이 서로 서로를 보듬는 애정과 나눔은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하는 용기가 되곤 한다. 우리의 주인공 해일 또한 분홍 돌고래 핀핀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내며 자신의 외로움과 장애를 딛고 세상 한가운데로 향하고 있으니 말이다.

들끓는 사회적 이슈와 함께 억울한 사람들의 내재된 불만이 터져 오르는 광화문광장에 자리한 극장에서 해일과 무스탕을 만나는 일은 흥미로움 그 자체다. 신인 배우 이지혜가 보여줄 해일의 눈망울과 안다정이 열연한 온화한 개 무스탕의 극적 연기가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선(善)을 불어넣을지 자못 기대가 된다. 창작극 <그 개>는 오는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공연된다. 문의 02-399-1794 ▲

전국 17개 지회에서 유일한 초고령사회 풀뿌리 모금으로 맞춤형 지원한다

사람들은 ‘사랑의열매’를 연말에만 바쁜 조직으로 오해하곤 한다. 연말 캠페인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 사랑의열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은 속 들어간다. 우리나라 국토의 12.3%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에 시군 기관이 22개, 사회복지시설은 1만 126곳이나 된다. 이러한 지역을 사무처장을 포함한 16명이 뚝뚝 뭉쳐 모금과 배분을 통해 나눔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힘들지만 확산되는 기부문화를 접하거나 수혜자들의 감사 인사에 하루가 행복해진다는 전남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수려한 다도해와 청정해역, 그리고 이름답고 풍요로운 들녘. 전라남도는 축복받은 천혜의 환경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역사회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녹록하지 않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면적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면적이 넓다. 특히 섬의 수는 2,165개로 전국 도서의 64.5%를 차지한다. 반면 면적에 비해 인구는 전국의 3.7%로 적다. 그중 21.5%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한, 초고령사회로 손꼽힌다. 22개 시도 광양·여수·순천·나주를 제외하면 기업이 많지 않다. 지역 내 생산 인구나 산업 기반이 적다 보니 전남의 시군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19.8%다.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전라남도는 기부금 모금활동은 어려운 반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가는 상황. 전남 사랑의열매의 활동이 더없이 중요하고 값진 이유다.

17개 시도 중 면적 3위... 섬도 많아 직원들 동분서주

연말이면 전남에서 아주 특별한 방송을 볼 수 있다. 오전, 오후, 저녁 시간에 방송에서 사랑의열매를 비롯한 연말 기부에 참여한 개인기부자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막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전남에서는 다르다. 뉴스 끝에 일일이 참여자들의 이름과 금액을 읽어서 소개한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개인기부자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풀뿌리 모금의 가치를 알기에 가능한 일이다. 타지역에서 전남에 올 때는 섭섭해하지만 떠날 때는 울면서 떠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싶다. 그만큼 정이 많고, 인정 따뜻한 곳이 바로 전남이다.

“전남은 개인이 십시일반 소액으로 기부하는 풀뿌리 모금 문화가 기반입니다. 개인기부가 51.2%, 법인기부가 48.8%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금모금액은 81.9%로 지회 평균인 64.6%에 비해 높습니다. 지정기탁 비율도 45.9%로, 지회 평균인 33.8%보다 높고요. 지정기탁 비율이 높은 것은 전남이 고향인 기부자들의 애향심이 그만큼 높은 방증이라고 볼 수 있지요.”

박선욱 전남 사랑의열매 모금사업2팀장은 지정기탁액 비율이 높은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역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덕분에 “배분사업 지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어 운신의 폭이 넓다”는 설명이다.

모금팀 동부·서부로 나눠 지역 특화모금 진행

올해 전남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모금액은 155억 2,000여만 원이다. 올해 7명의 아너 소사이어티와 5명이 나눔리더에 가입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기업기부가 적고, 초고령의 농어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연말 캠페인을 통해 15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모금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남 사랑의열매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2개의 모금사업팀이 담당하는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적극 소통하며 지역 특화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보성 ‘하루 100원의 행복’, 나주 ‘희망나눔 365’, 순천시 ‘착한시민캠페인’, 함평 ‘십시일반’, 고흥 ‘좁도리모으기’, 해남 ‘땅끝해남희망더하기’, 곡성군 ‘심청축제공양미삼백석’ 등 캠페인을 통해 일상의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모금액의 1/3 정도를 지역 특화모금으로 마련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돕는 모금이 더 와 닿을 수 있겠죠.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별 전통문화, 특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모금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현 전남 사랑의열매 모금사업1팀장은 “연말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소액이라도 꾸준히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줄어드는 법인기부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지난해보다 참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기업이 기부하는 고액의 기부가 많은 도민을 지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남 사랑의열매는 해당 기업들이나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맞춤형으로 모금과 배분을 연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올해 빈곤, 질병, 소외 없는 전남을 위해 216억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륙 중심에서 도서 지역 위한 지원도 모색

전남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190억 원의 배분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스러져가는 주택을 개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일과 같은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들이 주를 이룬다. 지역 민들의 발이 되어줄 차량 지원도 꾸준히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전달한 차량만 해도 500여 대에 달한다. “시군읍면동이나 복지 현장의 단체와 소통해 보면 의식주와 같이 기초적인 복지 욕구가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도내 인구의 약 38%를 차지하다 보니 생활이 안정 되는 도움들이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배 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중현 전남 사랑의열매 배분경영지원팀장은 세탁차량 지원이 인기 있는 것도 같은 이유를 꼽았다. 오 지 산간 마을의 노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뿐이라도 이불 빨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실은 차량을 지원해 침구 세탁을 통해 소외계층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전남도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혜택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많다. 모금회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 복지사업까지 대 발굴에 열심이다. 학생들이 모금한 재원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 것도 그런 예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기존의 내륙 중심의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도서 지역을 위한 지원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전남 도서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와 인프라가 열악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섬마을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 하고 있다.

“배분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홍보도 진행합니다. 모금회의 인지도가 강화되면 기부문화 조성에도 도 움이 되거든요. 전남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전 남 사랑의열매였으면 좋겠습니다.” ❀

“자유롭게 일하되 일처리는 아무지게 소확행이 가득한 공간으로 조성”

집무실 한쪽 편면을 가득 채운 작은 글자와 색색의 스티커가 붙은 종이가 눈에 띈다. 2018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및 일정표다. 사업별 담당자의 이름과 세부사업 및 추진업무들이 빼곡히 적혀 있고, 업무를 달성한 칸에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다. 맞은편 벽의 화이트보드를 채우는 분기별 일정들. 꼼꼼한 업무 계획에 전남지회의 수많은 업무가 한눈에 들어왔다.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익혔던 방법입니다. 직원 각자가 연간 계획을 세워 업무를 관리하

지요. 현재까지 얼마만큼 일이 진행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업무를 빠뜨리거나 밀릴 일도 없어서 효율적입니다.”

올해 광주 사랑의열매에서 전남 사랑의열매로 이동한 뒤 김상균 사무처장은 직원들이 지시를 받고 수동적으로 일할 때보다 훨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도입했다.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되 그만큼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아무지게 해내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부의 변화는 전남 사랑의열매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가득한 장소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다시 전남 지역의 도민들을 위한 에너지로 변해 전남 도민들의 생활에 행복을 더하고 있다.

문화 복지와 생계형 복지가 어우러진 지역축제 기획

김상균 사무처장은 광주 사랑의열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 결과가 기부문화의 확산으로 나타날 때가 가장 뿌듯하다. 지난해 광주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했던 축제가 그랬다. 행사에 3,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사랑의열매를 알게 되고,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은 벅찬 감동이었다.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주목받은 행사는 수많은 언론에서 알아서 소개되어 기부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됐다. 올해부터는 그 감동을 수많은 전남 도민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문화 복지와 생계형 복지가 어우러진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금회나 기관을 통해 금액이나 물품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눔을 위한 기부자들의 수고와 수혜자들의 감사한 마음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의열매가 힘든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투자로 우선 진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도 배분해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사업을 민간의 투자로 우선 진행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실패한 사업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조례를 바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열매도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다.

실패한 사업에는 보상 안 해...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토론회

모든 사업에는 위험 요소가 따른다. 그런데 성공할 사업이라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근 사회문제를 민간의 투자를 받아 해결하고 예상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최윤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입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범죄, 실업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자금을 투자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IB)’을 활용한 사업이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실패 위험을 우려해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하는 사회문제에 민간이 돈을 들여 해결하면 준비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업의 운영 주체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성과 목표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정부가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민간에 지급한다. 물론 실패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활용... 복지예산 1억여 원 절감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SIB 사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62개 그룹홈 경계선지능 아동 100여 명에 대해 3년 동안 교육사업을 진행한 뒤, 대상자의 34% 이상이 정상 범주로 올라오면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그룹홈 아동 한 명이 자립할 경우 기초생활수급비와 복지시설 운영비 등만 따져도 연간 최소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50명이 자립할 경우 최소 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는 경기도에서도 SIB 사업을 도입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SIB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이 제도화되면 정부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다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2월 연방의회에서 ‘성과기반보상을 위한 사회성과협력법’이 통과돼 미 재무부 예산 중 1억 달러가 SIB 지원 사업에 책정되기도 했다.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검증됐다.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된 SIB는 5년 만에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11개국에서 45개 사업이 진행됐다(2015년 11월 기준). 실제로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영국은 교도소 단기 재소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영국은 1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들 중 60%가 출소 후 1년 안에 재범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당시 영국에선 매년 단기 수형자 6만여 명이 출소했다. 통계로 따져보면 3만 6,000명이나 되는 '예고된 죄수'를 풀어주는 꼴이다. 영국 법무부는 피터버러시에 있는 HMP 교도소 단기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출소 후 재범률을 6년간 7.5% 감소시키는 프로젝트를 민간에 맡겼다. 그 결과 대상자의 재범률이 11%나 감소했다. 목표치를 달성해 정부로부터 투자 원금에 이자까지 없어 보상을 받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2013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SIB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복귀 비율이 60%에 도달해 사업자에 인센티브까지 지급했다.

잘만 활용하면 기부금 운용 리스크 줄일 수 있어

SIB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랑의열매도 이에 대비해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열매의 예산은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런 성금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관에 전달된 모든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사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전달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철저하게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사랑의열매가 SIB 사업에 눈을 돌린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복지영역에서 진행사업의 결과물을 보고 성공했을 때만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은 배분사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에게 결과물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극복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자금 지원을 연(年) 단위로 끊어서 집행하는 사랑의열매의 특성을 감안할 때 SIB 사업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처음엔 생소하고 어색할 것이다. 그러나 어색하다는 것은 틀리다는 말이 아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랑의열매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배분을 할 때다. ❀

습관대로 기부했더니 충북 첫 '나눔리더' 나누려고 돈 법니다



충북 최초 '나눔리더'가 되었다는 얘길 듣고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던 대로 기부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나눔리더가 되다니 얼떨떨합니다. 기부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나눔리더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라서 좀 멧쩍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에 기꺼이 나눔리더가 되었습니다.

전 청주시에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른컴퓨터인데요, '올바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똑바로 착하게 살자는 것이 생활신조라 상호도 그렇게 정한 것이죠.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은 바르게 사는 시작인 거죠. 현재 충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매달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부에 60만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매달 10만 원씩 기부했어요. 1명에 3만 원씩 3명의 장애인에게 용돈을 준다는 생각으로 했죠. 그러다 액수를 30만 원으로 올려 10명을 지원했어요. 사업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지금은 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착한가게에 가입해 매달 10만 원씩 정기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현금을 전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컴퓨터를 기증하고도 있죠. 합하면 한 해 3,0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니 제가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직원 2명과 함께 작은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벌겠어요. 직원들보다 수입이 적은 달도 있어요. 지난해 8월엔 수해를 입어 가게에 있던 컴퓨터가 모두 쓰레기로 변했죠. 노트북이 물에 떠다니는 걸 보면서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옆 가게 물 막아주다가 우리 매장에 물들어가는 걸 못 봤던 거예요. 무척 힘들었습니다. 4개월 동안 집에 돈 한 푼 갖다 주지 못했어요. 그때 기부를 멈춰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달 받던 용돈을 받지 못하면 장애아동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 도저히 끊을 수 없었죠. 아내에게 "6개월만 버텨보자"고 설득했어요. 감사하게도 잘 버텨주었어요.

전 돈이 있어서 나눔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눔을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제가 후원하는 장애아동이 20명인데 100명으로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장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나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 상관없어요. 100명 중 99명이 저를 비난한다고 해도 1명이 저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 기부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나눔문화가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것이니까요. ♡



중앙회

사랑의열매 발전 방향 논의 공청회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의견 들어

사랑의열매는 지난 9월 19일 대강당에서 사회복지계 인사들을 초청해 사랑의열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은 사랑의열매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주최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7월부터 2030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들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지난 20년을 성찰하며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사랑의열매에 바라는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비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변화의 방향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이번 공청회가 사랑의열매가 현장과 소통하며 보다 개혁적이고 개방적이며 복지현장에 친화적인 기관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와 발제로 시작되어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마정옥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박병현 부산대학교 교수,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이승민 SRC보듬터 원장, 이호영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황창순 순천향대학교 교학부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사회복지계 현장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착한권리 도서부문 1호 회원 탄생 이소노미아, 도서 판매 수익금 기부

사랑의열매의 신규 모금 캠페인 ‘착한권리’의 도서부문 1호 회원이 탄생했다. 도서출판 이소노미아는 지난 9월 4일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해 인문고전 전집 도서의 첫 번째인 《WHY》와 두 번째 책 《굿월》의 저작권료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정가의 5%를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기로 했다. 착한권리는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의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하는 모금 캠페인이다. 구혜미 대표는 “추후 제작될 도서도 착한권리 기부를 할 생각”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추석 맞아 저소득가정 등에 105억 원 지원

사랑의열매는 올해 추석을 맞아 저소득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약 105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복지기관 및 지자체를 통해 선정된 복지시설 2,243개 기관과 저소득층 가정·홀몸노인·노숙인·쪽방 거주민 등 소외계층 18만 7,268명이다. 사랑의열매는 이들에게 현금(상품권 포함) 84억여 원, 현물 21억여 원어치를 지원했다. 이 외 서울 사랑의열매는 124개 복지시설과 저소득계층 1만 2,000여 명에게 총 11억여 원을 전했으며, 부산 사랑의열매는 저소득층 1만 9,484가구와 무료급식단체 8곳에 총 10억 원, 울산 사랑의열매는 총 3억 6,0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용산 아동시설 혜심원에서 한가위 송편잔치

서울 사랑의열매(회장 윤영석)는 지난 9월 12일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에서 2018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행복 나눔 한가위 송편잔치 행사를 가졌다. 한가위 행사에는 혜심원 아동 30명, 서울 아너 소사이어터 클럽 회원 10명, 서울 사랑의열매 황후영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여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추석명절을 맞아 124개 사회복지시설과 1만 2,000여 명에게 11억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배분했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희망 더하기 소액 치료비 지원사업 협약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이사장 김철수)은 지난 9월 19일 서울 사랑의열매와 '희망 더하기 소액 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 연합모금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착한일터에 가입한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이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2,500만 원의 모금 목표를 두고 모금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임직원 성금기부와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등 모금캠페인을 전개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워크숍 열어

충남 사랑의열매(회장 이관형)는 지난 9월 6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2018년 충남도내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역 내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지정기탁 사업 우수사례 현장 방문, 2018년 기업 사회공헌 트렌드 및 공유, 도내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네트워킹 시간 등 실무자 간 교류활동으로 진행됐다.



보령시, NH농협 보령지부와 1인 1나눔 계좌 갖기 협약

충남 보령시와 충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9월 12일 NH농협 보령시지부와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은 시민과 기관, 단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가정을 발굴, 지원하는 후원자 중심의 범시민적 나눔운동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 보령시지부 직원 20여 명은 매월 1만 원씩 자동이체로 후원에 동참하게 된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경로당 어르신 사랑의 저금통 협약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김광홍)는 지난 9월 11일 충북 사랑의열매(회장 이명식)와 '경로당 어르신 사랑의 저금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도내 경로당마다 모금함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성금을 연말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인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 노인 지원 및 노인 여가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진천군 착한가게 100호 돌파

충북 사랑의열매에서 추진하는 진천군 착한가게 캠페인에서 100호가 탄생했다. 이번에 '100호' 가입 주인공은 진천군 백곡면에 있는 곰가네(대표 안원희)다. 충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9월 7일 '곰가네'를 방문해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안원희 곰가네 대표는 "평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착한가게 캠페인을 알게 돼 한 번의 고민 없이 그냥 가입했다"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수구시설공단, 착한ilter 업무협약 맺어

인천 사랑의열매(회장 정명환)는 지난 8월 31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방종설)과 '착한ilter'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종설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 희망자들이 94%에 이를 만큼 나눔 의지가 강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회공헌 기반을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추석 맞아 186개 복지관에 9,900여만 원 지원

인천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31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규모 복지관 지원을 위한 사업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추석을 맞아 인천 소재 소규모 사회복지기관 및 무료급식소 등에 공동차려상 및 식료품 등을 지원해 가족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생활시설 93개소에 약 3,700만 원, 이용시설 61개소에 약 3,900만 원, 급식소 및 도시락사업소 32개소에 약 2,300만 원 등 약 9,900여만 원이다.

광주



하이트진로 등 3개 기관 공익연계마케팅 업무 협약

광주광역시와 하이트진로(주), 광주 사랑의열매(회장 한상원)는 지난 9월 4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연계마케팅(CRM)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하이트진로는 호남권역에서 판매되는 주류 1병당 1원씩 적립해 2021년까지 총 3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고, 광주시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취약가구를 사랑의열매에 추천, 지원하게 된다.



와이마트, 광주 사랑의열매와 사회공헌 협약

광주 사랑의열매와 와이마트는 지난 9월 11일 와이마트 100호점 출점을 기념해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와이마트 김성진 대표, 김영훈 고문, 김인동 부회장을 비롯해 와이마트 각 점주 및 한상원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와이마트 김성진 대표는 광주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57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재해복구, 보훈가족, 노인지원, 결식학생후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남



KAI, 사천시 사회복지사들 대상 힐링 프로그램 지원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이사 김조원)은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제1회 사천시 사회복지사 소진예방 힐링 프로그램' 사업을 후원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의한 소진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재충전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사천시지부(회장 백운균)와 경남 사랑의열매(회장 한철수)가 함께 진행했다.



한철수 회장 자녀·사위 등 4명 경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경남 사랑의열매에서 진행되는 개인 소액기부자 모임인 '나눔리더'에 가족 4명이 동시에 가입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가입자는 경남 사랑의열매 한철수 회장의 자녀들로 지원·경원·광모씨와 사위 류일서씨 등 총 4명이다. 특히 한 회장과 최선자 여사는 사랑의열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어서 온 가족이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착한 가족이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경북 착한가게 2,700호점 돌파

경북 사랑의열매(회장 신현수)에서 진행하는 경북 착한가게가 2,700호점을 돌파했다. 2,600호점을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경북 의성군에서 2,700호로 가입한 '동해반점' 노경운 대표는 "무엇이든 더불어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씨 넉넉한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착한가게 기부가 소외 이웃들에게 작은 용기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놀이문화 형성 위해 7,000여만 원 지원

경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28일 2018년도 취약계층 문화격차 해소 사업 배분전달식을 열고 도내 사업수행기관 16개소에 사업비 7,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경북의 미래세대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설 16개소는 내년 2월까지 역사체험, 문화체험, 지역명소 탐방 등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추석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 6억 8,000만 원 지원

대구 사랑의열매(회장 함인석)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선물하고자 총 6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추석명절 지원은 저소득주민, 쪽방생활인, 노숙인 1만 2,100명과 대구 내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함인석 회장은 "대구 시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이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나눔으로 풍성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카펙발레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승합차 전달

카펙발레오(대표 배기만)는 지난 9월 6일 대구점자도서관에서 3,500만 원 상당의 승합차량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카펙발레오의 모태인 한국파워트레인(1993년 설립 이후 협력사인 현대차와 신차 개발 시 품질, 기술 지원 등을 통해 토크컨버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며 성장해 온 대구 토종기업이다. 카펙발레오가 2005년부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한 총 금액은 3억 3,000여만 원에 달한다.



어도초 풍물부, 민속공연대회 우수상 상금 기탁

어도초등학교 문화예술동아리 풍물부는 지난 8월 28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제주 사랑의열매(회장 고승화)에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난 8월 9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2018 전도학생 전통민속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받은 상금으로 풍물부 학생들의 희의를 거쳐 기부를 결정했다. 풍물동아리 이지담 회장은 "기부금이 좋은 곳에 쓰여 슬프거나 불편한 이웃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탐라어린이집, 수어경연대회 장려상 상금 전달

공립 탐라어린이집(원장 전소영)은 지난 9월 5일 제주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제21회 제주수어경연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한 상금을 기부한 것이다. 전소영 원장은 "원아들이 시상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도 배가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맞아 어려운 이웃에 1억 원 지원

대전 사랑의열매(회장 안기호)는 지난 9월 17일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명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억 원 전달식을 가졌다. 대전 지역 내 저소득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홀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2,320여 가구에 추석명절비 8,500만 원, 쪽방거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이 이용하는 2개의 사회복지기관에 명절 행사비와 무료급식, 공동차려상 비용 등 약 1,500만 원을 전달했다.



롯데케미칼 연구소,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식

롯데케미칼 연구소(소장 강경보)는 지난 8월 31일 유성구 장동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연구소에서 대전 사랑의열매와 함께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희망나눔 장학금'은 롯데케미칼 연구소 4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착한일터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성금이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매년 장학금이 지원되며 대학 진학 여부 등에 따라 입학금까지 지원된다.



바로코믹스, 도내 아동들에 도서 2억 원 상당 기부
 (주)바로코믹스(대표 장병엽)는 지난 9월 11일 2억 원 상당의 아동도서 1만 8,286권을 강원 사랑의열매(회장 한만우)에 기탁했다. 바로코믹스는 웹툰 플랫폼 ‘바로툰’을 운영하는 회사다. ‘바로툰’은 2016년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웹툰 플랫폼이다. 이번에 기부된 2억 원 상당의 도서는 ‘제12회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행사를 통하여 강원도 관내 140개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전달되었다.



강원도재활병원, 저소득 환자 지원금 조성 업무 협약 체결
 강원 사랑의열매는 지난 9월 17일 강원도재활병원, 보건의료노조 강원도재활병원 지부와 저소득층 입원환자 보장구 및 의료비 지원금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1년간 5,000만 원의 목표금액을 모금해 입원환자 중 저소득층 환자의 보장구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박희원 원장은 “강원도 재활병원이 기부문화 확산과 환자를 사랑하는 재활병원으로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전달식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는 지난 9월 4일 제5회 다문화가정 다정한 고향나들이 전달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Choi’s happy fund’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왕복 항공권 및 현지 체제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향을 가게 된 베트남 국적 트럼투밍 씨는 “이 사업 덕분에 지난 수년간 뵈지 못했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노인장기요양협 소속 20개 기관 착한가게 단체 가입
 경기 북부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착한가게 사업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의정부지회 소속 20개 기관이 단체로 가입했다. 지난 9월 11일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책마루도서관에서 진행된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에는 가능카네이션요양원 등 20개 요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가입한 기관은 약정한 기부금액을 매월 기부해 의정부 지역 위기가정, 노인 지원 사업을 도울 예정이다.



SK에너지, 남구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금 전달

SK에너지(주)는 지난 8월 2일 울산시 남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창업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회장 장광수)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발굴한 창업팀에 창업지원금, 창업공간, 창업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될 예정이다. SK에너지는 2015년부터 4년째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기탁하고 있다. 또한 기금을 지원받은 창업팀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울산 아너 클럽, 추석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 나눔 실천

울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들이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6일 봉사활동을 하며 울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온정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회원들이 손수 딴 과일을 포장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해 의미가 크다. 박봉준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물질적인 나눔이 아닌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 전남 배분지원금 216억 8,900만 원 전달

전남 사랑의열매(회장 허정)는 지난 9월 17일 전남도청 도지사실에서 빈곤·질병·소외가 없는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위한 2018년 배분예산 216억 8,900여만 원을 전달했다. 허정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은 “도민 여러분의 정성으로 전남 지역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기초생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교육지원,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남동발전 여수본부, 에너지 취약계층에 2,000만 원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본부장 이동렬)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 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 달라며 2,000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해 보다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및 보일러 설치, 방충망 및 화장실 수도시설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지엠 한마음재단, 지역사회 위해 5,000만 원 기부

한국지엠주식회사 한마음재단은 지난 9월 4일 전북 사랑의열매(회장 김동수)에 사회공헌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군산 지역의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보수, 장학금, 아동학대 예방교육,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홍순경 한국지엠 대외협력단장은 “회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해마다 해오던 사회공헌활동을 그만둘 수 없어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전통시장 상품권 4,500만 원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사는 지난 9월 11일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통시장 상품권 4,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통시장 상품권 전달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을 돕고, 침체해 있는 전북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게 됐다. 상품권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완주군 지역에 서만 사용 가능한 으뜸상품권을 포함시켜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



부산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출범

부산 지역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지난 9월 6일 ‘부산 W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창립 총회’를 열었다. 초대회장으로 이정화 보명PNT 대표가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명절 선물 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만들어진 선물은 영도구장애인사회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장애인가정으로 전달됐다. 이들은 앞으로 매년 2~3회씩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다.



BNK부산은행, 전통시장 상품권 4억 원 기탁

BNK부산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11일 부산시청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4억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부산 사랑의열매(회장 신정택)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신정택 부산 사랑의열매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엔 기탁된 상품권은 부산 지역 어려운 이웃들의 차례상 차리기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첨단소재, 지역 주민에 송편 만들어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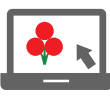


한화첨단소재 임직원들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선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9월 20일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세종동부농협을 방문해 '추석맞이 사랑나눔 송편 빚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명절음식의 송편 1,300여 개를 빚어 함께 포장한 후 홀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100여 명을 직접 방문에 전달했다.



세종중앙신협, 추석 맞아 3,550만 원 성금 전달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이사장 민병원)은 지난 9월 14일 신협 대강당에서 민병원 이사장, 홍영섭 세종 사랑의열매 회장, 정찬의 사랑의다리 장학회 대표, 홍종용 세종중앙신협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공동모금회에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3,550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세종시 저소득층 237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은누리상품권과 개인별 현금 10만 원을 지원해 추석을 맞아 소외감 없는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p>문자기부 #9004 (한 통에 2천원)</p>	 <p>ARS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천원)</p>	 <p>온라인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p>	 <p>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p>
 <p>계좌기부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p>		 <p>기념일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p>	 <p>이벤트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p>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객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는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자 클럽입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1,900호 회원 탄생 김민준 뷰티패스 대표, 만19세로 기업인 최연소

사랑의열매(회장 예종석)의 1억 원 이상 고객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가 1,900호 회원을 맞았다. 주인공은 스타트업 기업인 (주)뷰티패스의 김민준 대표다. 김 대표는 2017년 Forbes가 뽑은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인물 30세 미만 30인에 아시아 최연소로 선정됐다. 김 대표는 올해 만19세로 기업인으로는 아너 소사이어티에서도 최연소 회원이다. 김민준 대표는 지난 9월 20일 가진 가입식에서 “처음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할 때에도 훌륭한 스승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 82호

구제길 세종요양병원 이사장



“우리 이웃이 따뜻한 정을 통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희망찬 광주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하고 싶다.”

대구 123호

성창환 (주)대덕건설 대표



“소중한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다. 나의 작은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한 대구가 되었으면 한다.”

전남 74호

정성호 (주)용호기계기술 대표



“기부는 약속이다. 저의 나눔 실천이 앞으로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나눔의 씨앗으로 뿌려지길 소망한다.”

부산 146호

김기룡 인산죽염 부산지사 대표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 이웃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았고,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또한 같은 마음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서울 사랑의열매 박현명 님, 김민준 (주)뷰티패스 대표, 강윤중 보은산업 대표



광주 사랑의열매 김수현 경상북도소방본부 소방관, 김무현 경상북도소방본부 소방관



경기 사랑의열매 최진수 농구선수, 최승희 님, 임재춘 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익명



대구 사랑의열매 류광열 동진침장(주) 대표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호 독자의견

9월호에서 소방
공무원 이야기
가 가장 인상 깊
었다. 소방관들
이 국민을 위해
힘쓰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랑스럽고, 멋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을 기부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마음도 커졌다.

김재원 · 강원도 철원군

‘치매예방 프로그
램 지원’ 기사가
기억에 남는다.
가족과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
을 안겨주는
병인 만큼 시



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관찮으
실까 걱정도 된다. 사랑의열매에서 치매예방 프
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걸 알게 돼 감사한 생각이
든다.

김현지 · 서울시 금천구

소방관 관련 기사는 주로 ‘명예로운 죽음’ 또는
‘부족한 소방관 대우’ 등 가슴 아픈 소식들이다.
그런데 이번 사랑의열매 9월호에 실린 경북소방
본부의 기부 소식에 감동과 반성을 느낀다. 항상
몸 조심히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싶다.

송다영 · 경기도 수원시

참여방법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
(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텀블러



우산



열매 배지, 열매밴드



USB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
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
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나눔 인식표



군인이 목에 건 인식표에는 자신의 이름, 군번, 혈액형이 있습니다.

전사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니고 다니죠.

나눔리더인 이재우·이주은 대위의 인식표에는 나눔이라는 사랑의 열매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이 많은 전우에게 확산되길 바랍니다.